

전 세계 33개국 인쇄문화산업 대표, 한국에 모인다

- 8. 19.~21. ‘세계인쇄회의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 개최, 인쇄업계 관계자 500여 명 참석
- 국제 학술대회, ‘케이-프린트 2026’ 전시회, 산업 시찰 등을 통해 ‘케이-인쇄 문화’ 우수성과 기술력 전 세계에 홍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가 후원하고 (사)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병순)와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장선)가 주최하는 ‘2026 세계인쇄회의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가 8월 18일(화)*부터 21일(금)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 파주시 등에서 열린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8월 19일, 총회 개최식 현장(킨텍스 제1전시장)을 찾아 전 세계 인쇄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 8월 18일(화)에 이사회 개최

2016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류로 세계를 잇는 글로벌 인쇄 축제’라는 주제 아래 전 세계 33개국 인쇄문화산업 대표와 국내외 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다.

1989년에 창립,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인쇄회의는 전 세계 인쇄 및 관련 업계 인사들이 모여 인쇄문화산업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단체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2024년에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병순 회장이 세계인쇄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2025년의 스위스 취리히 총회에서 이번 총회 유치를 확정했다.

국제 학술대회,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인쇄산업이 나아갈 길 모색

8월 1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인쇄산업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 인쇄산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기조연설은 미국 겐트

워크그룹의 데이비드 즈왕(David Zwang) 회장이 맡아 세계 인쇄산업의 흐름을 조망한다. 이어 해외 전문가로 ▲영국 스미서스의 키어런 리틀(Ciaran Little) 부사장이 ‘인공지능 시대 인쇄 장비의 글로벌 전망’을, ▲독일 포그라의 엔 케르너(Enn Kerner) 엔지니어가 ‘인공지능 시대 인쇄표준화 방향’을 발표한다. 국내 전문가로는 ▲(주)프린피아 서동일 대표이사가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인쇄 시장의 미래’를,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조가람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 친환경 인쇄와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주)동양잉크 최지원 대표이사가 ‘인공지능 시대 인쇄잉크의 진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케이-프린트 2026’ 전시회 관람과 산업 시찰로 ‘케이-인쇄’ 기술력 체험

행사 기간 국제인쇄기자재 전시회인 ‘케이-프린트 2026(8. 19.~22.)’이 함께 열려 상승효과를 더한다. 참가자들은 19일, 개막식에 참여하고 전시장을 관람하며 디지털 인쇄, 스마트 자동화, 친환경 소재 등 최신 기술과 해법(솔루션)을 확인한다. 이날 전시회에서는 인쇄문화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한 국내 유공자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한다. 20일에는 파주시에 있는 국내 우수 인쇄 기업인 프린피아, 투데이아트를 둘러보며 ‘케이-인쇄’ 기술력을 체험한다. 21일에는 개별 사업 상담을 진행한 후 본국으로 귀국한다.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wpcf2026.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수 차관은 “1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세계인쇄회의는 ‘케이-인쇄 문화’의 저력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라며,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인쇄문화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국내 업계가 세계 시장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문화미디어산업실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책임자	과장	김선아 (044-203-3281)
		담당자	사무관	김하정 (044-203-3287)

